

제4차 OECD 세계포럼 및 한-UAE 양자협력회의 참가 결과 보고

I

제4차 OECD 세계포럼

1. 개 요

(1) 회의명 : 제4차 OECD 세계포럼 (The 4th OECD World Forum)

(2) 참가목적

- 통계청장이 OECD 및 공동개최국 인도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동 포럼의 개최세션에서 "From Busan to New Delhi" 라는 주제로 연설을 함
- 또한 통계개발원장이 유럽연합통계처 (EUROSTAT)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'녹색성장' 관련 연구결과를 「지속가능성」 세션에서 발표

(3) 회의장소 및 회의기간

- 회의장소 : 인도 뉴델리, Ashok호텔 컨퍼런스홀
- 회의기간 : '12. 10. 16(화) ~ 10. 19(금)

(4) 대표단

- 단장: 우기종 통계청장
- 단원: 최연옥 통계개발원장,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, 서경숙 국제협력 사무관, 이희길 통계개발원 사무관

※ 통계청장 및 국제협력담당관, 국제협력담당 사무관은 통계청장의 뉴델리포럼 개최 연설(10.16.) 후, UAE연방 통계청 및 아부다비정부 통계청과 양자협력

2. 주요활동

(1) 통계청장의 “부산에서 텔리까지 : 그간의 성취와 도전과제” 연설

- '09년 제3차 부산포럼에 이어 개최된 제4차 OECD 세계포럼은 웰빙과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GDP 중심의 기존 접근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, 좋은 삶(good life)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, 사회,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논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정책결정을 위한 웰빙 측정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
- 통계청장은 개회세션에서 “부산에서 텔리까지 : 그간의 성취와 도전과제”를 주제로 연설
 - 먼저 제3차 세계포럼(한국, 2009) 이후의 주요 성취로 OECD의 “How's Life?” 및 UN의 “행복보고서” 발간, 웰빙 측정 아젠다의 지구적 확산, 한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 및 개도국 국민의 삶의 질 측정과 방법론 연구의 성과를 제시
 - 향후 도전과제로 관련 지표의 공식통계 생산과 함께 정책적 활용을 위해 웰빙 성과에 대한 정책변수와의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
 - 또한 발전 측정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‘GDP’ 중심에서 ‘웰빙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웰빙과 사회발전 측정을 전세계 통계인의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, 이 요청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함
- 통계개발원장은 동 포럼의 ‘지속가능성’ 세션에서 “한국과 EU의 녹색성장 측정틀”을 발표
 -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틀 내에서 녹색성장이 갖는 위치를 규명함과 아울러 한국과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 이를 점검,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제시함

- 금번 포럼에는 브라질, 독일 등의 전 대통령, 인도 장관, 이탈리아, 멕시코 등의 통계청장, OECD 사무총장, 유럽연합 통계처장, 노벨경제학상(2001)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(콜럼비아대) 등 각국의 고위급 정책결정자 및 국가통계청과 국제기구의 수장, 학계 저명인사 등 70여개 국가에서 1,000여명이 참가
- 동 포럼의 논의 결과는 UN의 MDG(새천년개발목표) 완료에 따라 ‘15년 이후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지표에 대한 접근법(approach)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(2) 세계포럼 주요 논의 내용

- 텔리포럼은 크게 1) 물질적 생활조건, 2) 삶의 질, 3) 여성, 생애주기 및 전체사회 집단, 4) 지속가능성 4가지 주제 영역으로 구성

1) 물질적 생활조건

- 국민의 소비력을 포착, 경제적 웰빙을 측정하며 소득, 자산 및 소비지출과 같은 화폐적 측정을 비롯하여 직업, 근로조건 및 주거 등 비화폐적 측정을 포함함
- 불평등과 빈곤 퇴치, 자산의 역할과 분포, 직업과 웰빙 및 주거와 도시 인프라 개선 등에 관해 논의
- 물질적 조건 측정의 문제점과 SNA의 중요성 강조
- 많은 국가에서 아직 SNA 측정이 취약하고, 가구조사와 SNA의 일관성이 낮지만 SNA는 웰빙 측정에 여전히 중요한 지표임
- GDP를 대체하고자 하는 행복측정도 많은 문제(측정내용, 응답의 일관성, 응답의 맥락효과)를 안고 있어, 정책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

○ 가구의 자산 분포 통계

- 가구의 자산 분포 통계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나, 표준화된 방법이 부재하여 합의된 개념, 정의 및 분류가 필요하며
- OECD는 2013년 초반에 관련 가이드라인의 최종본에 대한 자문을 위해 회원국 회람 및 검증을 거쳐 이를 국제적 표준으로 채택 예정

○ 빈곤과 불평등(Benin 공화국)

- 연구결과를 보면 빈곤과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재분배와 경제성장이 핵심 요인이며, 빈곤 탈출 요인으로는 교육수준, 신용접근, 기초인프라 등이 중요하게 작용

※ 단위 국가의 웰빙 측정 사례 소개

- 부 탄 : GNH(Gross National Happiness) 사례
- 필리핀 : PHI(Philippine Happiness Index) 사례
- 중 국 : 중국통계청에서 웰빙측정(경제발전, 삶의 질, 민주주의)
- 캐나다 : CIW(Canadian Index of Wellbeing)
- 멕시코 : 주관적 웰빙 측정
- 호 주 : MAP(Measuring Australian Progress)

2) 삶의 질

○ 국민의 경제적 자원이나 물질적 조건을 넘어서는 개념으로, 건강, 일과 가족의 양립, 사회적 연계, 교육, 환경의 질 등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필요

- 특히 동 포럼에서는 건강, 교육과 훈련, 효과적이고 대응력 있는 제도 구축 및 주관적 웰빙 측정에 대해 집중 토의

○ 주관적 웰빙 측정의 중요성 강조

- 주관적 웰빙은 민주주의의 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직접 삶의 질을 평가하므로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고, 객관적 지표의 영향을 반영한 GDP의 대안임(Layard)

- (멕시코 사례) 멕시코에서, 주관적 웰빙이 높은 집단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,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반면, 낮은 집단은 학대 및 알콜 중독을 경험하고 범죄 및 육체적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
- (일본 사례) 일본 행복 측정결과(JICA), 행복은 주관적 웰빙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,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거나 사회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

○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

- 주관적 웰빙은 삶에 대한 만족도, 정서균형, 유데모니아(eudemonia)로 구분되며, 측정 쟁점은 문화차이(남미가 높고, 한국과 일본 낮음), 유데모니아의 척도개발임
- ‘13년 ~’14년에 주관적 웰빙 관련 국제 워크숍 개최 예정(유럽, 아시아, 아메리카)

※ UN의 2015년 이후 발전목표 설정

- . 지구적 경제, 인구이동 및 고용변화에 따라, 빈곤퇴치 중심 MDG에서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보다 전체주의적(holistic) 목표설정 필요
- . 지속가능한 발전, 형평성, 사회통합을 포괄하고, 상이한 발전단계 및 문화에도 적용이 가능한 접근법 필요

3) 여성, 생애주기 및 전체사회 집단

-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은 상이한 생활 영역에서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, 동 포럼에서는 여성의 권한강화(empowerment), 아동양육, 노인돌봄, 전체 사회내 집단 및 소수자 권리 인정을 다룸
- 성별 차이는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,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돌봄과 직업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지니며, 가정폭력 및 권력 격차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

- 청년은 교육과 직업의 질, 물질적 조건에서 웰빙의 차이가 있는 한편, 노인의 경우는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, 대상 집단별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보의 개선이 필요
- 성과 관련해서,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 고려, 가정폭력 파악, 생활시간 조사 등을 활용한 성 관련 통계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

○ 소수집단과 관련, 국가별 소수집단의 웰빙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개

- 호주의 경우 원주민 집단에 대한 기대여명의 차이를 제시하고, 이를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
- 미국은 라틴계 학생들의 경제적 위험이 높고, 건강보험 미가입, 학교 중도 탈락율이 높아 공동체 차원의 개선노력을 소개
- 소수집단의 권리보호나 웰빙의 개선은 개인차원보다 공동체에 기반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됨

※ 사회연구, 의회 및 시민사회의 역할

- 웰빙, 진보, 지속가능성은 규범적 개념으로 집합적 결정에 의해 추구되어야 함
- 통계 공동체는 이 개념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측정방법을 제공해야 하며, 다른 대규모 공동체(의회, 지역사회 집단)는 측정대상에 대한 비전 공유, 목표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노력해야 함

4) 지속가능성

- 미래세대의 욕구충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지속가능성은 특히 자원(resources)에 대한 논의에 집중함
- 자원은 상이한 형태의 자본(capital)으로 경제, 자연, 인적 및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되며, 미래세대의 웰빙을 위한 자원임

- 동 포럼에서는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의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, 세부 주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, 재해와 갈등에 대한 취약성, 경제적 지속가능성, 사회통합(social cohesion)임
- 제프리 삭스(Jeffrey Sachs)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의 목표와 지표를 제시
 - 4대 목표는 탄소저감 방식의 에너지 체계,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체계, 녹색도시(복원력, 적응력, 깨끗함, 스마트), 인구의 안정성(인구성장률)임
 - 지표는 GHG(Greenhouse Gas)의 집중과 fluxes, 멸종위기 생물 종, 해양의 PH, 해수면 수위, 탄소배출량 등을 제시
- 성장을 넘어선 다양한 측정방안
 - 개념틀로는 녹색성장, 진정한 발전(Genuine saving), BLI(better life index), GNH(gross national happiness)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됨
 - 결과물로는 계정(accounting)작성과 지표활용(dashboard) 방법이 있으며, 호주의 경우 환경경제통합계정(SEEA) 작성으로 측정 방향을 잡고 있음
- 동 포럼에서는 ‘이제는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가’가 아니라 ‘어떻게(how)’와 그 결과인 ‘통계자료’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함.

5) 결론 및 해결과제

○ 핵심내용(key message)

- 첫째, 웰빙과 발전 측정의 모멘텀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
- 둘째, 웰빙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 공유로, 웰빙 측정 핵심영역 설정, 지표체계 및 지표선정에서 국가간 유사성이 발견됨

- 셋째, 물질적 조건의 ‘OECD wealth 측정 가이드라인’, 가계 계정의 ‘불평등’, 삶의 질의 ‘주관적 웰빙 측정 OECD 가이드라인’ 등 일부 영역의 측정 방법이 발전함
- 넷째, 유엔에서 환경경제통합계정(SEEA)을 위성계정이 아닌 국제기준의 독립계정으로 승인함

○ 당면 도전과제

- 어떤 영역은 아직도 측정을 위한 개념적 문제 해결이 필요(가버넌스, 사회 자본)하고, 어떤 영역은 개념은 명료하나 측정문제 해결이 필요하며(지속 가능성, 사회계층 이동, 정신건강), 시의성 문제가 있는 지표도 존재함
-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, 웰빙과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며,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어야 함(시민사회에 대한 영향, 새로운 경영모델, 정책당국, 정책자문그룹의 역할이 중요)
- 또한 측정과 연구를 통해 주기적 평가(현재 상황, 개선이 필요한 분야)가 이루어져야 함

○ 향후 발전방향

- 2015년 이후 UN의 MDG를 대신할 수 있는 목표설정과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설정이라는 국제적 당면 과제 해결이 필요

3. 회의 프로그램

1일차 – 10.16.(화)	
09:00–09:30	Welcome : Master of Ceremonies(인도)
09:30–11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환영사 : T.C.A.Anant(인도 통계청장) . 개회사 : Shri Srikant Kumar Jena (인도 통계청 장관) Angel Gurria (OECD 사무총장) . 기조연설 : Montek Singh Ahluwalia(인도 기획위원회 차장)
11:00–11:30	Tea/coffee break
11:30–12:20	[SETTING THE SCENE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좌장 : R. Radhakrishna (인도 전 국가통계위원회 의장) . 기조연설 : David Cameron (video message) (영국수상) Luis Liberman (코스타리카 부통령)
12:20–12:30	. 좌장 : Martine Durand (OECD 통계국장)
12:30–12:40	Ki Jong Woo (한국통계청장)
12:40–13:20	(대륙별 회의 결과보고) Eduardo Sojo (멕시코 통계청장) / Naoto Yamauchi (일본 오사카대학) Ahmed Lahlimi Alami (모로코 기획부 장관) / Enrico Giovannini (이탈리아 통계청장)
Theme 1 : Material Conditions	
13:20–13:50	Part 1 전체회의 . 좌장 : Y.V. Reddy (인도 준비은행 전 총재)
13:50–15:00	Lunch
15:00–16:30	Part 2 병렬회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1a : 불평등 및 빈곤 감소(Reducing inequalities and poverty) . 1b : 자산분배(The role of assets and their distribution) . 1c : 비즈니스, 고용 및 웰빙(Business, jobs and well-being) . 1d : 주택·도시기반시설 향상(Improving housing and urban infrastructure)
16:30–17:00	Exhibition and Tea/coffee break
17:00–18:20	Part 3 전체회의 Introduction by Theme Chair Reports by Workshop Chairs General discussion Conclusion by theme Chair

2일차 – 10.17.(수)	
09:00–09:20	기조연설 : Joseph E. Stiglitz (미국, 컬럼비아 대학)
09:20–10:40	[Round Table 1 Measuring Well-being Initiatives in Individual Countries] . 좌장 : Jil Matheson (영국, OECD 통계위원회 의장)
	Theme 2 : Quality of Life
10:40–11:10	Part 1 전체회의 . 좌장 : Shailaja Chandra (인도, former chief secretary)
11:10–11:40	Tea/coffee break
11:40–13:10	Part 2 병렬회의 . 2a : 보건 상태의 개선 (Improving health condition) . 2b : 교육, 기술분야의 투자 (Investing in education and skills) . 2c : 인간의 주관적인 웰빙 제고 (Increasing people's subjective well-being) . 2d : Building effective and responsive institution
13:10–14:40	Lunch
14:40–16:00	Part 3 전체회의 Introduction by Theme Chair Reports by Workshop Chairs General discussion Conclusion by Theme Chair
16:20–16:50	Tea/coffee break
16:50–17:10	기조연설 Mark Lowcock (영국, 국제개발부 사무차관)
17:10–18:30	[Round Table 2 Beyond 2015– The Future of Development Goals] . 좌장 : Noeleen Heyzer (UN ESCAP Under-Secretary-General)
3일차 – 10.18.(목)	
09:00–09:20	기조연설 : Alison Evans (영국, 해외개발원장)
	Theme 3 : Gender, Life Course and Social Groups
09:20–09:50	Part 1 전체회의 . 좌장 : Martin Hirsch (프랑스, President, Agence du service civique)
09:50–10:20	Tea/coffee break
10:20–11:50	Part 2 병렬회의 . 3a : 여성의 권리강화 (Empowering women) . 3b : 어린이들 양육 (Nurturing children) . 3c : 노인계층 부양 (Caring for the elderly) . 3d : 사회적 그룹과 소수자 권리 인식 (Recognising social groups & minority rights)
11:50–13:10	Lunch
13:10–14:30	Part 3 전체회의 Introduction by Theme Chair Reports by Workshop Chairs General discussion Conclusion by Theme Chair
15:00–15:30	Tea/coffee break
15:30–16:00	기조연설 : Chandran Nair (홍콩, Global Institute for Tomorrow)
16:00–17:20	[Round Table 3 The Role of Social Research, Elected Assemblies, Civil Society] . 좌장 : Antony Gooch (OECD, public Affaire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)

4일차 - 10.19.(금)	
09:20-09:40	기조연설 : Jeffrey Sachs (미국, 컬럼비아대 Director of Earth institute, 반기문 UN사무총장 자문위원)
	Theme 4 : Sustainability
09:40-10:10	Part 1 전체회의 . 좌장 : Walter Radermacher (Eurostat, 통계처장)
10:10-10:40	Tea/coffee break
10:40-12:10	Part 2 병렬회의 . 4a : 지속가능한 환경 (Achiev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) - 최연옥 통계개발원장 발표 . 4b : 재난과 분쟁에 대한 취약성 제고 (Lowering vulnerability to disasters and conflicts) . 4c :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강화 (Strengthening economic sustainability) . 4d : 사회적 응집 (Social cohesion)
12:10-12:40	Tea/coffee break
12:40-14:00	Part 3 전체회의 Introduction by Theme Chair Reports by Workshop Chairs General discussion Conclusion by Theme Chair
14:00-15:00	Lunch
15:30-17:20	[Round Table 4 Well-being-International, National and Regional Models for Policy Making] . 좌장 : Pronab Sen (인도, Principal Adviser, Planning Commission)
17:20-18:00	. 폐회사 : A.P.J. Abdul Kalam tbc (인도, 전직 대통령)

1. 개 요

(1) 회의명 : 제2차 한-UAE 양자협력회의

(2) 개최배경

- UAE 연방통계청 및 아부다비 정부통계청과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하고 MOU 체결 이후 상호 통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협력사업을 논의함
- 양국은 제2차 한-UAE 공동위원회('10.5월, 서울) 개최 시 한-UAE 통계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국의 협력발전 방향 수립은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, 곧이어 제1차 청장급 양자회의를 개최함('10.7월, 대전)
 - 금번 회의는 그 후속으로 마련된 제2차 청장급 양자회의로 양국 간 통계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함과 아울러 우호적 관계를 심화시킴

(3) 회의장소 및 회의일시

- 회의장소 : UAE 아부다비 (NBS 및 SCAD)

*NBS :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/ SCAD : Statistics Center Abu Dhabi

- 회의일시 : '12. 10. 18(목)

(4) 대표단

- 단장: 우기종 통계청장
- 단원: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, 서경숙 국제협력 사무관

2. 주요활동

○ [한-UAE 양자협력회의] 한국 통계청장은 UAE 통계청이 제안한 “한-UAE 간 Generic Cooperation Plan”에 서명하고 양국의 통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례적 회의 개최를 위해 ‘13년 NBS 통계청장을 한국으로 초청함

- 국가 핵심인프라인 양질의 통계생산을 통해 양국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차기 한-UAE 공동위원회에 통계 아젠다 관련 안건 상정을 제안함

-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오던 UAE 고위급 직원을 위한 “맞춤형 통계연수 과정”과 “UAE 해외 통계자문단*”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, 이와 관련한 우리측의 협력을 약속함

* UAE측에서 자국 통계발전을 위해 해외 5개국 기관장급 자문단(한국, 호주, 브라질, 스웨덴, 유엔통계처)을 발족(‘11.3.23.)하였음

- 한국 통계청이 오는 ‘12. 11. 27.~29. 동안 유엔통계처(UNSD)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“인구주택센서스 2010 라운드를 넘어*” 국제세미나 초청장을 전달하고, NBS 관련 전문가의 참가를 독려함

* International Seminar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: Beyond the 2010 Round

○ UAE 연방통계청은 동 양자회의에 아부다비채널(Abu Dhabi Channel), SharJah TV, 연합통신(WAM) 등 3개 미디어를 초대, 한국 통계청장의 방문 및 양국의 협력회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, 이에 통계청장은 SharJah TV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음

- Rashed Al Suwaidi UAE 통계청장은 국가통계데이터센터에서 자국의 통계 발전 현황과 특징 등을 직접 소개하고, 한국통계청장의 모든 제의를 수락함과 아울러 향후 양국의 통계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함

- [한-아부다비 양자협력회의] 한국 통계청장은 아부다비 정부통계청(SCAD)을 방문하여 양기관 간 MOU 체결이후 첫 번째 통계협력회의를 열고, 아부다비측의 요청에 따라 국가통계제도 확충, 통계 생산역량 강화 등에 적극 협조함과 아울러 한국의 “통계법”을 송부토록 약속함
- 또한 아부다비 통계청은 국가통계생산시스템 개혁을 위해 E-Statistics*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, 이를 위해 우리의 통계집중생산제공방식인 나라시스템(Nara System)의 벤치마킹을 희망하고 있음
 - 이와 관련하여 아부다비의 상기 프로젝트 관리팀이 오는 11월 초에 한국 통계청을 방문할 계획이며, 통계청장은 우리청의 시스템을 비롯한 통계 IT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함
- * 아부다비 내 60여개 유관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자동수집, 수집절차 간소화, 자료 제공 통합화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이 SCAD의 자료서비스시스템을 접속하여 원하는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